



오늘의 말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3:3

오늘의 주요기사

2	대림절의 모든 것	8	양육클래스 종강	13	교사일기
3	평남노회 노회장 서신	8	형제교회 감사편지	13	교회사용설명서
4-6	교육수료후기	9	선교사역이야기	14-15	브니엘의집
7	찬양대 / 어와나	10-12	임직자 소감	16	십자말씀이



빈 방 있습니까?

중학교 시절, 성탄절 행사로 준비한 ‘빈 방 있습니까?’라는 연극에서 ‘덕구’역을 연기했었습니다. 연극 속의 연극에서 ‘덕구’는 빈 방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줄 수 없는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주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많은 연습을 마치고 드디어 연극 무대에 서는 날, “여기에는 빈 방이 없으니 다른 곳을 찾아보시오!”라며 요셉과 마리아를 매정하게 보내야 했던 대사와는 반대로 ‘덕구’는 자꾸만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으면서 연극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홀로 무대에 남은 ‘덕구’는 “예수님이 우리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보낼 수 없었다”고 고백하며 잠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에게, 쉬어갈 방도 누울 자리도 없었던 예수님께 나의 빈 자리 하나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함글함글

대림절의 모든 것

지난 11월 27일 주일부터 강단에 초가 장식되었다. 초는 대림절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의 주일, 대개 11월 말에서 12월 초의 토요일 저녁부터, 성탄절 전야인 12월 24일 저녁기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한국교회에서는 가톨릭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에서 대림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다. 이번 호에는 대림절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다.

‘대림절’이라는 이름

‘대림절(待臨節)’을 뜻하는 영어 ‘Advent’는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되었다. ‘대림시기’,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하며, 모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의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4편 예배와 예식에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고취시키는 절기”라고 정의되어 있다. 서방교회의 대림절 첫날은 성 안드레아 축일(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이며, 동방교회에서는 좀 더 빠른 11월 중순부터 이 절기가 시작된다.

대림절의 유래와 역사

대림절이 기독교의 주요 절기로 정착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3~4세기 무렵, 지금의 프랑스인 갈리아와 스페인 지역에서 성탄절을 앞둔 3~6주 동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고행과 금식을행하는 관례가 정착되었다. 3세기 초 카르타고 출신으로, ‘삼위일체(Trinity)’라는 용어를 포함하여 처음으로 수많은 라틴어 신학용어를 만들어 사용한 신학자인 교부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는 ‘강림(Adventus)’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에 임재(臨在)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고 기록했다. 강림절은 갈리아 지방에서는 4세기 무렵 에피파네스 절기(1월 6일)를 앞두고 금식일로 지켜졌다. 이 전통에 따라 그리스정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전까지 금식일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5세기 중반에 이르러, 투르의 페르페투우스(Perpetuus) 주교가 성 마르티노 축일이었던 11월 11일부터 성탄 전까지 40일 동안 단식과 고행을 행하는 절기의 전통을 수립했다. 유럽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던 이러한 전례를 바탕으로 567년의 공의회에서 대림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레고리오 교황(590~604) 시대에 이르러 교회력에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4주간의 절기로 정착되었다.

8세기 전례 예전의 개혁을 주도했던 메츠의 아말라리우스(Amalarius)가 쓴 <교회의 성무일도(Ecclesiastical Offices)>에서는 대림절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날’로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무렵부터 대림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키는 전통이 확고하게 정착되었다. 대림절이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절기로 인정된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과 기쁨 속에서 기다리는 기간이었으나, 중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을 위한 심판의 날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공포와 속죄를 위한 절기로 간주되기도 했다.

종교 개혁 후, 근대에 접어들면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리는 기쁨의 절기라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했다. 가톨릭에서는 1917년 이후 대림절 동안 단식이나 금욕의 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교회력과 대림절

대림절은 교회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회력(Church Calendar)이란 라틴어로 ‘Annus Ecclesiasticus’로 표현하며,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을 배열한 달력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행적을 1년을 주기로 기념하기 위해서 형성된 교회력에서는 1년을 ‘전례력 년(Church Year)’이라고 한다.

교회의 절기에는 구약시대의 3대 절기에서 계승된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절, 이후 50일째인 성령강림절이 있으며, 부활절 전 40일간을 사순절로 지킨다. 교회력에서는 1년 주기뿐 아니라 1주일 주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7일째를 안식일로 노동을 쉬고 예배 집회를 행한 구약의 회당의 관습이 그 다음날, 주의 첫째 날에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따라서 ‘주님의 날(주일)’이라고 불리는 주일은 예배를 통해 복음의 행적이 기념되는 주님의 축일인 동시에, 매주 축하하는 작은 부활절의 의미가 있다. 교회력은 기독교 교파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독교의 주요 절기인 부활절과 성탄절을 기준으로구성되며,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과는 달리 대림절부터 시작한다. 그레고리력이 1월 1일부터 한 해를 시작한다면, 교회력은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림절에는 교회의 한 해 시작을 알리는 뜻이 담겨 있다.

대림절의 예전과 상징물

대림절을 상징하는 예전의 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자주색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며 훈련하는 절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대림절을 맞아 교회에 따라 자주색, 연자주색, 분홍색, 흰색의 초를 주일마다 순서대로 밝혀서 대림절 4주의 의미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초를 푸른 나뭇가지로 엮어 둥글게 만든 대림환으로 교회를 장식하기도 한다. 대림절 초는 보통 진보라-연보라-분홍색-노란색 또는 흰색 순으로 불을 켜고, 성탄절에는 흰색 초에 불을 밝힌다. 초의 색깔이 차츰 밝은색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가까이 오고 계심과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주님의 강림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표시한다.

초기의 대림절 초는 붉은색 2개, 노란색 1개, 흰색 1개를 사용했는데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肉化)를 상징하고, 노란색은 영혼과 육신의 생명력을, 흰색은 신적 영광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의미했다. 자주색이 대림절의 상징색으로 등장한 것은 대림절 시기에 속죄를 상징하는 자주색 제의를 입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함글함글



평남노회
노회장 서신

평남노회 197회 정기 노회를 마치고

샬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님의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함즐함울에 귀한 지면을 허락해 주신 김화수 목사님과 당회,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교회를 섬기는 197회기 평남노회 노회장 영주교회 조중현 장로입니다.



197회기 평남노회는 10월 18일 새은혜교회에서 성(聖)노회로 개최되어 새로운 노회장을 선출해 임원을 개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회무를 처리하며 목사 안수식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며 은혜 중 마쳤습니다. 저는 장로 노회장으로 주님의교회 교우분들에게 노회의 역할과 사역에 대해 지면을 통해 소개하며 노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또한 197회기 임원들과 함께 임기 내 섬기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주님의교회가 속한 평남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 속해 있는 69개 노회 중 하나입니다. 평남노회는 지역별로 강서시찰, 강남시찰, 강북시찰, 부산시찰, 4개의 시찰회안에 있는 154개의 교회가 있는데 주님의교회는 강남시찰에 소속해 있습니다. 노회는 교회를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목사님들과 장로 총대 약 6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회는 일 년에 봄과 가을에 두 번 개최하며 각 시찰회와 교회의 헌의 안으로 교회의 설립과 목사님들의 청빙, 이명을 허락하고, 신임목사 안수식을 개최합니다. 또한 총회로 부터 내려오는 업무지침, 지 교회의 보고 및 청원 사항을 처리하며 11개의 부서와 특별위원회 사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노회 규칙에 의해 필요한 결의를 합니다. 가을노회에서는 임원을 개선합니다.



평남노회는 목사님들이 노회장을 하시지만 4년에 한번은 장로 노회장으로 선출합니다. 장로 노회장 후보의 자격조건은 노회원 장로는 누구나 후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노회가 마치면 노회장과 임원 8명이 노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명 주셔서 교단 총회의 회계 임원과 재정부장으로 노회에서는 부회계, 회계, 재정부장, 부노회장을 순차적으로 섬기고 감사위원장으로 노회와 총회의 일들을 배우고 경험하셨습니다만 부족

한 사람인데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노회원님들의 사랑으로 장로 노회장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노회장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주신 소명으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먼저 스스로 성찰하며 겸손과 섬김으로 맡겨주신 직임을 성실히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노회장으로 노회의 지체된 교회들이 마치 합창을 하듯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영적 화음을 맞추어 조화롭고 평안한 노회 만드는 일에 힘써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교회의 부흥을 위한 여러 사역과 사업에 힘을 모으려 합니다.

노회의 154개의 교회 중 농어촌 교회와, 특수 목회를 위한 교회, 동반성장을 위한 어려운 교회를 시찰회의 도움을 받아 실정을 파악하고 직접 찾아다니며 교회와 목회자를 도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 합니다.

주님의교회는 오래전부터 선교와 구제 봉사를 잘하시고 노회의 어려운 교회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시는 모범적인 교회인데 함께 고민하며 협력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912년에 시작된 평남노회는 교단에서 오래되고, 큰 노회이지만 오랜 전통과 함께 시대에 맞는 변화를 추구함으로 강물이 흘러서 신선함을 유지하고, 모든 것을 품은 것처럼 엔데믹 시대에 선두주자로 달려가겠습니다. 평남노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교단 총회 안에 69개 노회 중 최고의 품격 있는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 정상에 힘써서 오르면 바로 내려와야 안전한 것처럼, 주어진 임기 동안 낮은 자세로 겸손을 실천하겠습니다. 장로로서 품위를 지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197회기 임원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노회장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께 글로 나눔을 갖게 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님 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중현 장로 / 평남노회장

아기정원
수료후기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통로

저는 10살 5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오영재 집사입니다. 큰아이는 아기정원을 통해 너무 큰사랑과 귀한 은혜를 받은 기억이 많아 둘째는 꼭 아기정원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저희 딸은 아기부, 영아부 때 엄마랑 드린 흐릿한 기억의 예배가 전부이고 늘 태블릿 화면으로 만나는 온라인 예배만이 예배인 줄만 알았습니다.

1학기 때 7가정의 친구들과 예배드렸는데 그때는 코로나에 걸리거나 접촉자와 접촉만 해도 올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기정원 부모님과 아이들은 결단하며 현장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그때의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참 많이 울며 예배드렸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함께 예배하고 놀이하고 나눔 시간을 통해 서회는 정서적으로 행복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매주 아기정원 가는 시간을 손꼽아 목요일만 되길 기다렸습니다.

2학기때는 16가정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교회 다니지 않고 놀이터서 전도되어 나온 친구, 조리원 동기 친구, 타교인이신데 신청해서 나온 친구 등등 참 다양하고 귀한 어린 영혼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오는 친구들, 또한 넘 귀하고 특별한 사연이 있어 눈물짓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친구 등등 아기정원이 정말 꼭 필요한 아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한주 한주 아가들의 모습을 통해 정말 행복해하는 친구들을 보며 오히려 엄마 된 제가 힐링과 감정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날 저는 저희 딸 서희에게 아기정원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희가 “응 나도 알아. 나 이제 언니 되어서 아기정원 못하지? 아기정원해서 넘 좋았어. 제일 좋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서희의 고백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 고백이 또한 저의 고백이었음을 주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늘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 사역자님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기정원은 정말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다음 학기 때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영재 집사 / 8교구

아기정원
수료후기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안녕하세요, 5살 이인규, 3살 이현규 엄마입니다.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것이 모든 엄마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비바람을 맞아도 거친 파도를 만나도 잘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규와 현규는 아기정원에서 엄마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촉감놀이부터 대근육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엄마인 저는 아기정원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나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며,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너무나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놀이를 하다가도 아기정원에서 배운 찬양을 흥얼거릴 때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구요~ 무엇보다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고, 나눔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팁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아기정원을 통해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기획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신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 예쁜 두 아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러하셨듯이 매일 매일 우리 인규·현규의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지연 집사 / 8교구

세움학당
수료후기

하나님 속에 나를 세워가는 시간들

세움학당은 하나님속에 나를 세워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장순애 교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 영성여행 시간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면서 성경적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착각에 내가 중심이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 세움학당을 신청할 때에는 아직 이런 교육을 받기에는 믿음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건강 문제도 확실치 않아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 중 항상 실행력이 좋은 아내가 신청을 주도하였고 일단 신청을 하고 참가를 하니 꾸준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6시에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아이들을 6시 전까지 밥 먹이고 2시간 동안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호호호 웃으면서 반겨주시는 이은미 전도사님과 매 강의마다 각 분야의 명강사분들께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세움학당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나누며, 삶에 적용해봅니다.

이제는 부족하지만, 저희가 세움학당의 배움을 가지고 교사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자신으로 잘 흡수했는지 보는 방법은 가르쳐보면 된다는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조금씩 배운 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태섭 차경진 집사 / 8교구

세움학당
수료후기

예수님 닮은 신앙 교사를 많이 세워 주소서

애당초 나는 세움학당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교회에서 열리는 강좌인데 3회 이상 결석하면 안된다는 규정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받아야 수료할 수 있다는 매우 이상하고 엄격한 강좌. 거기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황금 시간대 강좌? 여기 등록하면 오랫동안 토요일 저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데,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저런 강의를 들으려고 할까? 그런데 아내가 사고를 쳤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아내가 내 의견을 무시하고 몰래 수강신청을 해 버린 것이다.

그렇게 세움학당은 반강제로 시작되었고, 20주 동안 나의 토요일 저녁을 앗아갔다. 그런데 불만 섞인 얼굴로 시작한 첫 수업 “기독교교육 바로알기”에서 나는 의심 많은 도마와 제자들을 깨우치시는 교사로서의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고 직접 만져보게 했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향하던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었다. 세 번씩이나 배반했던 베드로도 찾아가서 그에게 양들을 맡겼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듣던 나는 감동을 받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파할 때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 만나주었고 상처를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교사였다. 과연 나는 고등부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길 때 아이들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종종 나는 목사님들에게 질문할 기회가 오면 “이 시대 예수님 같은 스승은 어디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곤 했다.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같은 스승을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나는 평소에 생각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런 나에게 세움학당 첫 강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같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 가르침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첫 수업에서 예수님을 만난 나는 주말이 오기도 전에 세움학당 강의를 기다리는 좋은(?) 학생으로 변해 있었다.

이어진 세움학당 강좌들은 예수님 같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로서 예배, 성경, 자기관리, 상담자의 기본자세, 효과적인 강의법, 영성 훈련 등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들이었다.

그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몇 가지 가르침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예배는 은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2. 신앙 교사는 먼저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하며, 기도, 말씀 묵상, 말씀대로 살기 등을 날마다 실천해야 한다.
3. 신앙교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무장해야 하며,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꾸나선생”이 되어야 한다. 꾸나선생은 언제나 학습자들의 말에 감탄사를 연발하여, “그렇구나”를 입에 달고 산다.
4. 교사의 영성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살았다.
5. 신앙교사의 가장 큰 적은 교만이다. 사도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고, 인생의 자랑거리는 모두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
6. 신앙교사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가정에서 비판의 말은 절대 금지해야 하며, 오직 칭찬과 격려의 언어만 사용하며,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야 한다.

세움학당 강의들은 주로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들이 맡아 주었으며, 마지막 강의로는 “가족이 신앙교사”라는 주제로 김화수 목사님께서 열 강을 해주셨다. 일부 강의는 교수님들이 복잡한 교육 이론들만 나열하여 지루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강의는 유익했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세움학당 강좌들을 돌아보다가 “예수님 같은 교사가 되라”는 첫 강좌의 가르침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 교차되면서 나에게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엄습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결코 예수님 같은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 같은 스승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도 아마 십자가는 지지 않고 십자가의 영광만을 취하고자 하는 샅군 교사들만 가득하기 때문일 것이다.

신앙교사라는 영광만을 취하고자 하는 나 같은 샅군을 야고보는 이미 오래전에 예견하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을까? 십자가를 지는 거창한 희생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손해보려하지 않으며, 교만과 수군거림,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들로만 가득 차 있는 나 같은 자가 누군가의 신앙교사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가 신앙교사를 꿈꾸었던 것 자체가 교만의 극치가 아닌가?

하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던 베드로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바울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앙교사로 바꾸어 주셨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도 작은 희망을 가져본다. 나 같은 샅군은 스스로 신앙교사로 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은 신앙 교사들을 많이 세워주시기 소망한다. 그리고 그 신앙 교사들로부터 양육될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김익환 안수집사 / 3교구

BPC

마더와이즈 종강 소식

지혜로운 어머니 - 동행

할렐루야! 마더와이즈 4기 “동행”편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마더와이즈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교회 현장에서 9주(09.27-11.22 매주 목요일)동안 진행하였고 36명이 수료했습니다. 그야말로 마더와이즈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 위기와 고난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소망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은영 목사 / 마더와이즈

마더와이즈
수료후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먼저 마더와이즈에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1조)에서 부족한 저를 간증자로 세워 주셔서 참 긴장되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년이 넘도록 코로나 유행이 계속되고 큰 내가 작년에 ‘중2병’이 오고 작은 애도 사춘기가 오면서 버티던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큰 애가 학업에 충실하지 않자 그간의 노력이 허무해져서 다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저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정이고 뭐고 나를 위해 살자고 막내가 유치원에 가는 시간에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집안도 아이들도 방치되어 갔습니다. 애 셋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회사에 다니고 집안일도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걸 느끼고 다시 집에 돌아왔더니, 또 허전해서 남는 시간에 쇼핑과 유튜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번아웃이 온 저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집안일과 육아를 방치하고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고 저 혼자 살면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상처주고 막나가는 엄마로 몇 달을 지냈습니다. 저의 방황을 거자씨에서 알았는지, 집사님들이 저를 가평 필그림의 ‘천로역정’순례길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천로역정의 주인공의 모습이 저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례길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제가 주인공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에 걷는 내내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이 끝도 없는 육아와 제가 지나고 있는 이 어두운 동굴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각자 자기의 고난대로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동행한다고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마더와이즈 공지가 나왔을 때 그 과정이 힘든 훈련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용기내어 신청하였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저와 비슷한 가장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넘버원조(1조) 자매님들의 이끌림에 마더와이즈를 무사히 마치고 수료식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들을 키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6S기도(마더와이즈 중보기도 방식)를 통해서 기도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끌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를 정도로 수동적으로 이끌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 주 이 자리에 저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남편과 다투더라도, 자식이 속 썩이고 내 맘 같이 되지 않는다고 몸부림치고 울먹여도 여기로 인도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영욱 집사 / 3교구



찬양대
연합수련회

호산나, 시온, 샬롬, 임마누엘



2022년 11월 12일 1층 소예배실에서 주님의교회 찬양대원 112명이 참가하여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연합수련회를 가졌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예배-이론강의-휴식-실전강의-기도회-경품추천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대혁목사님께서 수련회를 여는 예배와 기도회를 주관하여 주셨고 김광일 음악위원회 장로님께서 신실한 기도로 수련회를 충만하게 채우셨으며 강연자로 모신 박치용 서울모테트 지휘자님께서 두 시간 반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박치용지휘자님은 주님의교회에서 초기 찬양단을 만들 때 기초를 세우셨으며 주님의교회 찬양단을 직접 지휘하셨기에 휴식시간에는 예전 찬양 대원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한 시간 반 동안 찬양의 본질에 관하여 깊게 파고들어 찬양대원의 기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친구여 내가 생각하기에 신학을 제외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정, 情) 하나님 아는 지식을 풍성히 하고(지, 知)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의, 意)은 오직 음악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네”라고 말한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여 찬양대원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0분 휴식 후 합창을 하면서 배우는 실전강의 시간을 통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찬양을 연습해야 하는지 기본자세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알차기도 했지만 재밌기도 하여 강의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강의를 마치자 모두들 너무 짧다고 아우성을 칠 정도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주님의교회 호산나 지휘를 맡고 계시며 박치용지휘자님과 함께 서울모테트 부지휘자를 맡고 계신 민태경지휘자님께서도 박치용지휘자님의 강의를 여러 번 들었지만 이렇게 재미난 분이신지 처음 알았다며 놀라셨을 정도였습니다.

강의에 이어 음악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이대혁목사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뜨겁게 기도회를 이끌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매 짝수 달 둘째주 토요일에 음악위원회 기도회를 이끌고 계시며 찬양대원 이전에 말씀과 기도가 우선인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미를 장식할 경품추천이 이어졌는데 경품은 올해 출간된 박치용지휘자님의 저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열권을 저자 사인으로 추천하여 드렸으며 수련회를 주관한 호산나 찬양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2장과 김광일 장로님께서 체크카드를 협찬하여 총 13분에게 경품을 나눠 드렸습니다. 이제 수련회 보고를 이대혁목사님께서 주님의교회 찬양대의 이름으로 해주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매일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4부)을 경험하며, 영적 시온(2부)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호산나(1부)를 외치며, 샬롬(3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음악위원회 모든 찬양대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염인호 안수집사 / 호산나찬양대



어와나 | 교사영성수련회 & 클로징데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2022년 11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제16회 한국 어와나 교사 영성수련회가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렸다. ‘회복의 길 오직 복음’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교사영성수련회는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더욱 뜨거운 기도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미얀마와 베트남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듣고 함께 기도했으며, 한국 어와나가 글로벌센터 건축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어린이까지 품고 세상 모든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음을 모았다. 올해는 어와나의 임창남 부장과 티앤티(10~13세)의 어머니 교사, 박정수 교사가 10년 봉사 시상을 받았다.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클럽활동을 시작한 주님의교회 어와나는 커비단(5~6세)부터 저니(고등부)까지 말씀 암송과 예배, 그리고 많은 고민들에 대한 신앙적 해결 방법들을 함께 나누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해왔다. 2022년 11월 26일에는 모든 클럽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클로징데이를 진행하였다. 각 클럽을 수료하는 친구들과 핸드북을 완성한 친구들을 시상했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어와나 클럽활동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말씀암송과 재미있는 게임, 그리고 교제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한다.

함줄함울



양육분과위원회
양육클래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심



주님의교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화)부터 12월 3일(토)까지 모두 12개 과목의 양육클래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양육클래스의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학기부터 2022년 1학기까지 다섯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던 양육클래스를 이번 2022년 2학기에는 12개 과목 중 다섯 과목을 오프라인으로 교회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었던 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1학기 양육클래스를 마치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 이상이 온라인 방식을 선호했음에도 이번 학기 오프라인 양육클래스 5개 강좌에 모두 164명이 수강하여 현장 강의에 대한 성도들의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양육클래스 7개

강좌(유튜브 5개, 줌 2개)에는 65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교회 양육클래스는 성서 관련 강의를 모은 믿음 과정, 기도와 신학 등의 강의를 모은 소망 과정, 선교와 실천을 주제로 하는 강의를 모은 사랑 과정으로 세 종류의 과정을 적절히 준비하여 개설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학과 2학기에 걸쳐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육클래스를 개설할 예정이며, 방학 기간에는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한 강의를 전 교인을 대상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매 강의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강의한 강사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각 강좌에 열심히 참석하신 성도들에게 격려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3년에도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윤경수 목사

4여전도회
영주평강교회 방문

저는 다시 힘을 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2019년까지 주님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홍성욱 목사입니다. 주님의교회를 떠나 영주평강교회를 섬기게 된 지는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영주평강교회에 부임한 지 두 달 만에 코로나가 시작되어 교회의 사역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힘들어했던 기간 동안, 부족한 종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교회와 4여전도회가 함께 기도와 후원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영주평강교회는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방송시스템을 만들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웃 사역도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27일, 주님의교회 4여전도회 회원들께서 영주평강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니 주님의교회에서 사역했던 일들이 떠오르며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고, '주님의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라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고맙고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며칠 전부터 정성껏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셨던 평강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의교회 4여전도회 회원들과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합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느끼고 서로 격려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힘을 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사역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만남 속에 기도와 격려로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주님의교회와 영주평강교회와 함께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홍성욱 담임목사 / 영주평강교회

기관선교부
이웃사랑선교회

도시윤락가선교 사역이야기

내가 자란 동네에.. 복음의 사각지대가..

전도는 학창시절부터 내게 너무 쉽고 당연한 것이었다. 제법 멀리 사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서 데리러 가고, 헌금을 쥐여 주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간식을 사 주는 일이 여간 재밌고 신나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전도에 대해 기쁨이 고조되던 어느 날, 청량리역 근처에서 가깝지만 근접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여성들을 보았다. 잠깐의 놀람과 호기심에 이어 그녀들에 대한 혹독한 사람들의 평가와 손가락질을 보며, 나 또한 그 거리를 멀찍이 피해가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청량리588'이라 불리는 악명 높은 성매매집결지였다. 그 후로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들을 들을 때면 '그녀들에게도?'라는 질문이 내면에 떠올랐고, 선교에 열정을 가지게 된 30대를 지나면서 기도 중에 다시 그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시시때때 그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길 간구했다. 내게는 여전히 소년시절에 본 '근접할 수 없는 거리'였지만, 누군가 '거룩한 이'를 그곳에 보내주시겠는지 관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교학 전공 중에 시대적으로 변화한 선교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미 전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확인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시겠다던 예수님의 약속의 때가 임박했는데 아직 어딘가 땅 끝이 남았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열방 중의 '그곳'이 아닌 아무도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 어릴 때 본 '그곳'이 떠올랐다. 수많은 혹평과 손가락질 속에서 멀찍이 잊혔던 곳. 특히 수많은 교회의 수많은 전도대회에서도 당연히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곳.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피해가는 동안 무성한 범죄의 숲을 이루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던 곳. 바로 '청량리588'이었다. 그곳은 복음이 아직 이르지 못한 땅 끝, 복음의 사각지대였다. 나의 "누군가를 보내소서"하는 관망의 기도가 그곳을 복음의 사각지대 즉 '땅 끝'이라고 지정하는 지점에서 큰 두려움이 다가왔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거룩하지도, 그곳에 갈 용기도 없는데. 쳐다보기도 싫은 곳인데..." 불현 듯 시작된 관망의 기도가 복음의 사각지대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였음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를 꿈꾸며..

선교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즈음에 나의 두려움은 극복되어갔다. 그러자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듯한 아내의 강렬한 반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흘리는 아내의 눈물을 뒤로 한 채, 2010년 3월 28일에 복음의 사각지대인 청량리588에 첫 발을 내딛었다. 사역 첫날, 5년여의 시간동안 기도와 사전조사 그리고 선교전략으로 무장하며 얻은 담대함이 낯선 땅에서 입 한 번을 못 떼고 조롱당한 것 같은 기분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같이 놀다가라는 여성, 건달들의 위협, 당최 가고 싶지 않은 내적 갈등, 아내의 투덜거림이 복병처럼 나를 잡아당겼지만 두 가지 확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힘을 내게 했다. 하나는, 그녀들에게 가져갈 간식이나 선물비용이 매 주 정확하게 서로 다른 손길을 통해 준비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곳에 다녀올 때마다 그녀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다. 뜻밖에도 그 사랑은 현장에 다녀 온 나 뿐 아니라 다른 사역 중인 아내에게도 전해져 그녀들과 사역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일으켰다. 마치 어린 시절 친구를 전도하며 신나고 즐거웠던 기쁨의 시간이 재생된 것 같았다. 예배처소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는 동안에는 매주 그녀들을 방문하고(아웃리치), 매월 청량리 윤락가 외곽에서 거리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 주 그녀들을 찾아가기를 5년이 되던 해, 3월부터 그녀들의 요청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했다. 기적처럼 마련된 장소에서 기적처럼 찾아온 한 영혼과 기적처럼 변화된 아내 그리고 동역자가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 많을 때는 30여명의 여성이 모일 때도 있었다. 다가가기 두렵기만 하던 그녀들이 아기같은 모습으로 찬송을 부를 때는 얼마나 사랑스런 모습인지. 안타깝게도 현재 코로나19와 장소문제로 인해 예배가 멈춰져 있지만 그녀들은 아직도 예배가 재개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아픔의 땅이.. 회복의 땅으로..

2010년 청량리 사역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대구의 거대한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과 2015년에는 수원의 성매매집결지 '고등동'을 병행하며 매월 아웃리치 하는 등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했다. 놀랍게도 선교회가 기도하며 방문하던 이 세 곳의 성매매집결지가 2021년 수원 고등동을 끝으로 사역을 시작한 차례대로 모두 사라졌다. 아픔이 있던 땅에서 회복이 있는 땅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걷던 곳들에 지금은 성매매집결지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터전들이 세워져가고 있다. 이 어둠의 땅들이 사라지는 동안 선교회는 선교대상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도록 심터와 자활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시와 때를 조절하며 그녀들의 삶에 개입해 주셨고, 그녀들도 감사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열매'를 운운할 수 있을까라는 현재는 선교회 내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여성들의 탈업과 자립·자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성매매여성의 탈업은 경제활동과 더불어 질병, 주거, 빚, 정서, 습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윤락가'를 향하여 찾아갔으나 이제 그곳은 없고, 이제는 복음을 향해 선교회에 찾아오는 여성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다. 누리지 못했던 존중을 경험하고, 불만과 욕설이 흘러나오던 입에서 감사와 배려의 말이 늘어가고 있다. 땅 끝인 줄 알고 찾아간 성매매집결지가 사라지고서야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땅 끝임을 새삼 깨닫는다.

한국교회의 1%가 사역에 동역할 수 있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아직 갈 길이 먼 이웃사랑선교회에 주님의교회 기관선교부 송재승 부장님과 부원들께서 찾아와 주셨다. 코로나19로 외부사역에 동참하기 힘든 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열정을 전해오셨다. 복음과 새로운 삶을 위해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듯 한국교회의 1%가 이웃사랑선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하던 중이어서 더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다. 아내는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복음의 효율성을 제시하며 어린이들을 잘 가르칠 테니 아이들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의 침묵을 경험했다고 한다. 다만, '하나님께 효율성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을까?'라는 스스로의 질문이 돌아왔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선교적인 입장에서 복음의 효율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효율성에 밀려 선교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그곳의 영혼들이 복음을 마주할 수 없다면, 한국교회의 1%만큼은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와 사역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중에 주님의교회가 선교의 사각지대, 복음의 사각지대를 찾아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최선 목사 / 이웃사랑선교회

항존직 임직
임직 소감문

새로 안수받은 항존직을 소개합니다

2022년 12월 4일 3부예배 때 항존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5월에 실시된 2021년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를 통해 장로 3인, 안수집사 20인, 권사 20인이 피택되었고 6개월간의 피택자 교육 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받습니다. 소감과 함께 항존직 여러분을 소개합니다.(가나다 순)

함글함글

■ 장로



김용규 장로

많이 부족한 저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룩하신 귀한 신앙 공동체의 소중한 전통을 잘 유지하면서 교회의 화목에 힘쓰고 맡은 바 소임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 장로

참으로 부족한 저를 장로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빛과 소금과 같은 주님의 제자 되어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힘쓰며 순종하겠습니다.



홍완식 장로

교회의 일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는, 처음부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고 또한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사람도 없으니,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열심을 낸다고 하여 누구를 넘어뜨리고 자기도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 안수집사



강석구 안수집사

하나님과 주님의교회에서 부족한 중을 안수집사로 피택해 주셨으니 열심을 다하여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동안 많은 은혜 되었고, 식어버린 믿음에 불씨를 다시 되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직을 받게 되었으니 섬기는 임직자, 충성된 임직자, 주님의 일을 우선 순위로 두는 임직자, 교회의 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는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권성욱 안수집사

갑작스레 안수집사로 부름받아 준비되지 않은 채 두려움을 갖고 시작했지만, 6개월간의 피택자교육을 통해 직분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은 발전하였다고 생각되며, 부족하지만 교회 일꾼으로 일할 때 몰아가며 배워가며 열심히 해 나가야겠다는 자신감도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섬김의 자세로 실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안수집사

에벤에셀 하나님 도우심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불러 세워주신 안수집사 직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교우들을 섬기며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받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김범석 안수집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롬 1:1).’ 제가 로마서를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안수집사로 피택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도록 가정을 중심으로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진 안수집사

모태신앙으로 주 2~3일 이상 교회에 출석하다 상처받는 일로 예배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준비된 순서와 화음이 맞는 성가대를 기대했습니다. 불현듯이 ‘왜 나는 좋은 예배, 성전을 찾으면서 이곳을 위한 예배, 성전에는 무관심한가?’ 생각되어 교회에서 작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임직하니 더욱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안수집사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 또다시 밝았습니다. 오늘의 생활이 어제와 다를 수는 없듯이 임직을 받고서도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렵고 떨리는 것은 지난 시간보다 믿음생활이 게을리되는 염려와 앞으로 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교육과정은 벅찼으나 동료들과 함께 마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김은석 안수집사

두려움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속에 피택자 교육에 참여하였지만 벌써 6개월여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매일매일의 큐티, 새벽예배, 성경1독, 필요한 서적을 읽어가면서 지나온 지난 시간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 감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와 사명대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내 뜻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김재운 안수집사

이번 교육은 믿음의 기초를 새로 닦고 직분자로서 소양을 갖추는 소중한 시간이자 개인적으로 그동안 치뤘던 어떤 준비 과정보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저를 피택하시고 교육을 마칠 수 있게 해 주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저를 믿고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떤 직분이 맡겨져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 각오가 살아가면서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박범석 안수집사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제가 쓰실 곳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주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잃을지 솔직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섭니다. 교만하거나 태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열심을 내며,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박성갑 안수집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안수집사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겸손함과 솔로몬의 지혜의 기도로 응답받는 임직자의 삶 살겠습니다. 가정선교 / 직장선교를 통해 믿음의 회복을 나눌 수 있도록 공동체 삶 이루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큐티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리더가 되도록 항상 저를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고 은혜로운 삶 사는 안수 집사가 되겠습니다.



서철수 안수집사

바쁜 나날 속에서도 피택자 교육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부족한 저를 항상 보듬어주시고, 안수집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깊게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 아낌없는 사역과 감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진원 안수집사

피택자 교육과정동안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할까? 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신앙생활을 생각하며 “건강한 보수신앙을 가진 개혁교회 평신도 사역자” 라고 정리했습니다. 안수집사로 임직하면서 이 정체성에 따라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교회의 정신을 지키며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오광순 안수집사

안수집사로 피택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성과 순종을 다짐합니다. 제가 가진 능력은 한없이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크신 축복을 예비하시고 귀한 직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만 바라면서,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하여 겸손하게 순종하려 합니다. 여러 동역자님들과 마음을 합하여, 선한 청지기같이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원 안수집사

하나님의 은혜로 피택자 교육을 잘 마친 것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잘 살아내어 교회에 분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내와 자녀 앞의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작은 미물같은 나를 임직자로 세우신 뜻을 평생 되새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기호 안수집사

임직자 교육 6개월을 통해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임직 전에는 나만을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이었으나 교육을 통해 공동체를 의식하고 위해서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밑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두 안수집사

낙엽을 재촉하던 비가 그쳤습니다. 가로숫길 하늘에 노을이 타고 내립니다. 길 끝에, 두 팔 벌려 “어서 와” 하시며 환희 웃음 짓는 내 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해, 효두야~” “저두요 주님~~” 강변 둔치 하늘은 잔잔한 호수입니다. 한 점 눈물 씻긴 내 맘은 천국입니다. 이마 타고 흐르는 땀 방울 방울은, 내 님 드릴 타작마당 얼음냉수입니다.



장동현 안수집사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그 어떤 것도 내게 의지가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의지가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장병남 안수집사

6개월의 피택자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43명의 피택자를 직접 교육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함께 섬겨 주신 두 분 목사님, 교육기간 동안 섬겨주신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교육을 마무리하며 힘들었던 성경일독, 큐티나눔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가르쳐주신 대로 배우고 섬기고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식 안수집사

주님의교회의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맡겨주시는 사명에 순종하고 섬김으로 기쁨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고 신앙의 교사로 올바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겸손하게 섬김의 본이 되길 소망합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교회 가족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맡겨주시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정희봉 안수집사

묵상과 새벽예배가 6개월 지속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게으름을 이겨내고 회사 일 때문이라는 핑계를 극복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부족한 저와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디모데전서 4: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 권사



강승미 권사

부족하지만 주님의교회 권사로 택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나를 바르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낮은 자세로 섬기고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힘쓰겠습니다.



고선애 권사

제 인생에 언제나 그러하셨듯 하나님은 제가 또 부족하고 연약할 때 저를 세우셨습니다.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분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신 직분에 충성됨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기쁨인 직분자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수연 권사

하나님과 함께라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라 늘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화 권사

저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교육을 받을 때 뜻밖에 나의 죄악된 면을 보게 되었고, 회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부디 저를 사용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기쁘고도 복된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샘물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선희 권사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더 채워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직분 맡은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겸손히 잘 섬기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시길 주님 의지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갑니다.



김은희 권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즐거이 부르실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마음껏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층 더 깊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주님의교회 권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김희수 권사

부족한 제게 과분한 직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 긍휼, 겸손을 품으시는 아름다운 예수님! 주의 종의 다짐과 헌신을 감찰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교회와 주님 나라에 덕이 되는 일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수희 권사

부족한 저를 택하시고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럽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으며 주님의 인도하심따라 순종하고 헌신적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겸손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는 자로서 지체를 세우고 섬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원은영 권사

피택자 교육과 훈련을 마치면서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교회를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앞에 서려 하지 않고, 주님의 뒤에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미경A 권사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거할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경C 권사

무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임직을 받습니다. 맡겨진 일을 정성된 마음과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숙 권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춘희 권사

지금 이 순간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보살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삶의 중요한 해법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전기숙 권사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를 믿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제 권사라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처음 피택자가 되었을 때는 두려웠지만 교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담금질하여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선희 권사

피택자 교육에 참여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터치하여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하면서 따뜻하게 챙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히 임하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순 권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권사의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교회의 선한 청지기로 헌신하겠습니다.



조은경 권사

주님께서 부르실까봐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내 나름대로 믿으며 의심하며 나름대로 섬기는 신앙인이었음에도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교육기간 암송구절들 중 한 구절이었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기며 새로이 시작하러 열어 주시는 믿음 생활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최금주 권사

하나님, 저의 저됨을 돌아보니 너무 부족한 자인데 권사로 임직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연합된 튼실한 가지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성령의 열매가 삶의 자취에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참된 예배자로, 신실한 봉사자로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 되길 기도드립니다.



최현정 권사

먼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피택자 훈련과정을 통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되었고 새벽예배와 큐티나눔과 실재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섬김에 힘쓰며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황 경 권사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권사로 피택되었으니 되돌릴 수 있는 감사의 기회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오니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 꼭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신명기 6:5-7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교사일기
소년1부

교사를 하면서 느낀점

오랜 시간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아이가 4명이나 있으면서 아이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를 다녔고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지 아이들을 상대로 선생님의 역할은 자신도 없을 뿐 아니라 어색해서 도저히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동요 찬송과 율동은 더더욱 내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그동안 섬기던 너나들이부를 그만두면서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그동안 초등부를 섬겨 온 아내가 같이 초등부 교사를 하자고 권하였을 때, 별다른 이의를 달지 못하고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반을 맡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별 부담 없이 하기로 하였다.

참으로 어색하기 그지없던 율동은 내가 선생님이기에 하기 싫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따라 하게 되었고, 점차 이 율동이 나름대로 운동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사실은 그렇게 창피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부모님들 손에 이끌려 일찍 교회에 오게 되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싫은 곳에 와서 따분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츰 모범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지겨워하고 목사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도 있지만, 대다수 아이들은 참으로 착하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5월 이후부터 예배 후에 공과 시간이 다시 시작되면서 반을 맡게 되었는데 참으로 쉽지가 않았다. 우리 반은 최소 5명, 많이 나오면 8명이 출석하는 반이었는데 공과 공부가 시작되면 아이들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많이 어려웠다. 사실 지금도 이것이 가장 어렵다. 시작 기도는 내가 하고 끝나는 기도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아이가 하기로 했는데 준비 안된 상태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금은 별 무리 없이 잘하게 되었다. 출석을 부르고 기도를 한 후, 오늘 예배 시간의 본문이 나오는 앞뒤의 성경 구절들을 교독하는 시간을 가진다. 내 생각에는 이럴 때라도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공과 공부를 하게 되는데, 경험이 없고 바쁜 주중을 보내다 보니 준비를 잘하지 못하여 공과 공부는 충실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 그럼에도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전 교회적으로 성경 필사를 할 때 우리 반 아이들 중 상당수가 필사를 하고 있었으며 모두가 성실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임을 알게 되었다. 친구들과 초청행사를 할 때 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여름에 단체 물놀이와 게임을 할 때는 상당한 단합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우리 반 아이들 하나하나가 보석같이 귀한 아이들이고 집에서도 가정교육을 잘 받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범생들이다. 이런 아이들을 초보 교사인 나에게 보내주어 고맙고 감사하지만 내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라도 올바른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 노력은 하였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다.

소년1부는 선생님들 수가 많이 부족하다. 아이들은 50명을 넘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는데 선생님들 숫자는 한참 모자란다. 나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적응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열심과 성실만 가지고 계시면 소년1부 교사로 언제든지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라나는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잘 교육하고 이끌어 줄 예비 선생님들! 소년 1부로 지금 바로 달려오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 안수집사 / 소년1부

교회사용설명서⑧

달력 사용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주님의교회에서는 매년 연말 이듬해 달력을 제작, 교회 공동체에 배포합니다. 달력은 탁상 달력 형태이며,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책상이나 식탁에 놓고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달력은 표지 포함 13장으로 되어 있으며, 한쪽에는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가고 다른 쪽에는 월별 날짜가 들어 있습니다. 매년 3,500부를 제작하여 한 가정에 하나씩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

2023년도 달력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특히 교회의 내년 주제인 ‘하나님의 선교’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년 <함줄함울>에 연재했던 ‘하나님의 선교’특집기획에 기고되었던 글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주요 개념을 쉽게 풀어서 쓴 핵심 단락을 선정해서 넣었습니다. 날짜 면에는 월별 주제 성구가 들어 있으며, 날짜별로 일반 사회의 여러 기념일과 함께, 교회력과 교회의 주요 일정, 행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해 가운데 성경일독이 가능하도록, 날짜별 성경일독표를 넣었습니다. 날짜의 공간을 충분히 두어 메모의 기록도 가능합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달력은 교회 홍보출판부에서 직접 기획, 편집, 디자인, 발주하여 제작비를 기성 상품보다 현저하게 낮추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물가 상승에 따라 전년에 비해 제작비가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되도록 가정당 하나씩 비치하여 일상에서 교회력과 함께하고 성경일독의 지침으로 삼을 때, 달력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줄함울



브니엘의집을 소개합니다

브니엘의집은 1997년 3월 5일에 설립되어 24시간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브니엘의집에는 지적, 지체 등 선천성, 또는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외형적인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1~2급 장애인들이 모여 지친 어깨를 서로의 등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브니엘의집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자산을 마련하지 못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뜻을 함께하는 후원자님들과 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아쉬운 것들도 많지만, 천국 소망을 간직한 브니엘가족들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브니엘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봄, 가을 나들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니엘 가족들의 자립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대상자들이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곳을 선정하여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니엘 가족들은 주일이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재를 통해 행복한 신앙생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브니엘의집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1길 22-1

전화 02) 857-3818 **원장** 박상준 집사

기도제목

1. 시설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원치 않게 브니엘의집 부지도 강제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조합 측에 브니엘의집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대체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브니엘의집이 재건축으로 인해 쫓겨나지 않고 재정착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브니엘의집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도움의 손길 또한 줄어들어 요즘은 최소한의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돕는 손길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구제부 소식
브니엘의집

장애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배를 타고 10여분 정도를 더 가야하는 성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성남도는 50여 가구의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조그만 섬마을입니다.

7살 때의 여름방학, 그날은 할머니 제삿날로 기억됩니다. 삼대독자 만며느리셨던 어머니는 할머니 제사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바쁘셨고 나는 뒤뜰에서 3살 어린 남동생에게 매미를 잡아준다며 나무에 올라가다가 그만 발을 잘못 헛디디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모님은 땅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진도로 나가 당시 유일한 병원이었던 무면허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침이 척추신경을 잘못 건드리면서 신경에 마비가 왔고, 이 사건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맙니다.

형과 누나 등에 업혀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친구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버린 텅 빈 고향집에서 온종일 방안에서만 있어야 했던 저의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었으며, 어촌생활이 늘 그렇듯 부모님마저 바다에 나가시면 아버지가 먹다 남은 큰 소주병은 늘 방 한쪽에 있었습니다. 어느새 술을 마셔야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담배를 피워야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의 저의 유일한 소원은 술에 취해 잠들어 깨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고향에 서울이 고향이신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전도사님께서서는 외로움에 지친 저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거의 매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술에 취해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던 중, 언제부터인가 전도사님 앞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섬에 있으면 영혼마저도 패인이 될 수 있다며 서울에 가서 기술을 배우라는 전도사님의 설득으로 1986년 전도사님께서 소개해주신 독산동에 위치한 작은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공장에 취직하여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서울로 온 저는 장로님께서 운영하는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공장에서 50여 명의 아주머니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



울도 장애를 가진 저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땅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함께 일하는 분들이 너무 잘 대해주셨지만 제 마음 속에는 늘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과 타인의 진심을 의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저녁이면 술을 마셔야만 잠을 잘 수 있었고 토요일 저녁에 술을 마시면 주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 마음은 늘 부정뿐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서 구원의 확신마저 없었던 저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일그러진 나의 신체적 장애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를 자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989년 가을 몇 달 동안 기침이 지속되고 기침을 하면 피가 섞여 나오면서 체중감량이 계속되어 고대구로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결핵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후 여수결핵병원에 입원하려던 저를 불쌍한 자식이니 죽어도 당신의 품에서 떠나보내시겠다며 어머니께서는 고향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58kg의 체중이 40kg까지 빠지고 눈을 뜨기조차 힘이 들자 고통 없는 죽음을 꿈꾸던 예전과는 달리 이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살고 싶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주먹씩이나 되는 독한 결핵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수시로 일어나는 위경련에 시달려야 했고 1년 만이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예전처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과 함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늘 스스로를 괴롭히던 마음의 병 또한 치유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폐결핵으로 요양 중 고향교회에서 찍은 박상준 사진입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다시 서울에 상경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출받으려 하니 은행에서 보증이 있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어느 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일면식도 없었던 집사님이 선뜻 은행대출보증을 서주셔서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어 반지하 공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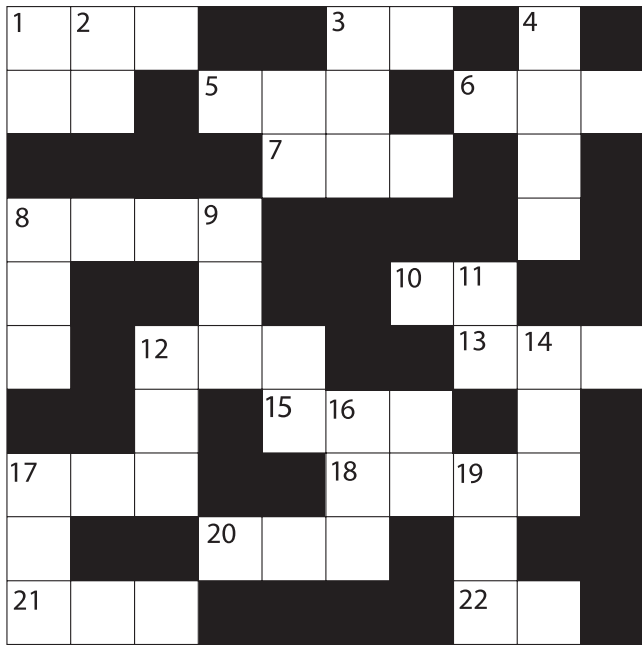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이웃들을 통해 핸드청소기 부분 조립을 하는 작은 하청공장을 제가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995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의 도움으로 브니엘선교회를 설립하게 되면서 장애인 선교를 하게 되었고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하고 억압된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세계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저는 장애인분들과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1997년 3월 5일, 브니엘의집을 설립하여 장애인분들과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마음에 자유함이 없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오늘도 천국 소망을 꿈꾸며 열심히 생활하는 브니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니다. 살롬! 박상준 집사 / 브니엘의집 원장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여호수아편

이번 호에는 <여호수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담긴 역사서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59호 신명기편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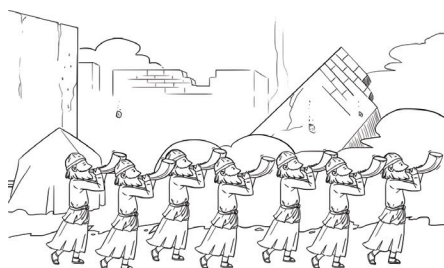


가로 힌트

1. 벨엘 동편 아이와 가까운 곳. 이곳의 황무지는 베냐민 지파가 소유한 땅의 경계였다. (수 18:12)
3. 사르단에 가까운 성읍의 이름. 요단강에 흘러내리던 물이 이곳에 이르면 멈추어 쌓였다. (수 3:16)
5.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 스룹바벨이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그비라 출신 사람들도 함께 귀환하여 이곳에 다시 정착했다. (수 18:26)
6. 요단강 하류 동쪽으로 25km 지점으로 895m의 고원에 위치해 있어서 요단 지역을 내려다 볼 수 있었던 성읍. 이곳은 원래 아모리인의 왕인 시혼의 수도였는데 모압에게 빼앗겼다가 이스라엘이 차지하여 르우벤 지파에게 주어졌고, 갓 지파의 영토가 되었다가 다시 레위 자손에게 주어졌다. (수 13:26)
7.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못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해당하는 곳. 이곳에서 산출되는 백향목은 배를 만들거나 목공 재료로 사용했다. (수 13:5)
8. 에브라임 지파인 노의 아들. 원래 이름은 '호세아'이다.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수 1:1)
10.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 같은 이름의 가수도 있다. (수 12:7)
12. 요단강 서편 세겜의 남서쪽 지중해 해발 약 950m 지역에 있는 산.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들의 절반이 이 산 앞에 섰다. (수 8:33)
13. 스불론 지파와 접해 있는 땅. 잇사갈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다시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졌다. (수 21:28)
15.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저지대를 부르는 말. 좁게는 사해에서 아카바 만에 이르는 에돔 산지와 네게브 산지에 끼여 있는 긴 골짜기를 가리킨다. (수 11:2)
17.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에 있는 성읍. 기랴트 여아림이라고도 부른다. (수 15:9~11)
18. 가나안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땅에 살던 원주민.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되었다. (수 24:11)
20. 유다 남부 에돔 지방에 살았던 족속. 에돔의 후손으로 이 족속에 속하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아, 헤브론을 기점으로 받았다. (수 14:14)
21. 엘리압의 후손. 잇사갈 지파의 북쪽, 아셀의 동쪽, 납달리의 남서쪽인 가나안 북부 내륙에 위치한 곳을 분배받았다. (수 19:10~16)
22. 노동이나 힘든 일 후에 맞는 심신의 휴식. 출애굽 세대 중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수 23:1)

세로 힌트

1. 여리고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 유다의 북쪽, 베냐민의 남쪽 땅이 맞닿는 경계에 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전리품을 감춘 죄로 인해 돌에 맞아 죽은 아간이 묻혔다. (수 7:24~26)
3.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저지대를 부르는 말. 좁게는 사해에서 아카바 만에 이르는 에돔 산지와 네게브 산지에 끼여 있는 긴 골짜기를 가리킨다. (수 11:2)
4. 바산 왕 옥이 통치하던 도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점령했고, 므낫세 동쪽 반 지파, 마길 자손의 절반에게 분배되었다. (수 13:31)
8.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8km,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29km 떨어진 요단 계곡에 위치해 있는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한 성읍으로, 성을 돌던 일곱 날째 일곱 바퀴를 돌며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자 성이 무너졌다. (수 6:12~25)
9. 함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족속. 성경에서는 키는 백향목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고 묘사했다. (수 7:2, 7)
11.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하나. 가나안 점령 후 동쪽으로 사해,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한놈의 아들 골짜기를 거쳐 지중해변에 있는 압느엘까지, 남쪽으로는 사해 남단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애굽 시내까지를 분배받았다. (수 15:1~12)
12. 유다 평지의 성읍. '벽'이란 뜻이다. (수 15:36)
14. 가나안 땅, 주로 가나안 변두리와 산간 지역에 살았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았으며, 후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수 11:3)
16. 예루살렘 남서쪽 4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으로 파괴되어 이스라엘의 성이 되었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수 15:39)
17. 가나안 땅에 속한 성읍. 이스라엘 점령 후 잇사갈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수 19:21)
19. 팔레스타인의 다른 이름. 성경에서는 요단강 서편 지역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수 11:3)



교회일정

12/4(주일)	임직식
12/7(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1교구 주관)
12/11(주일)	정기당회
12/25(주일)	성탄절 / 성탄가족예배

알립니다

1. 유아세례교육

대상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세례교인의
24개월 미만 아기

신청 : 11/27(주일) ~ 12/10(토)까지

교육 : 12/11 ~ 12/18(2주) 오후 2:30(온라인 교육)

유아세례식 : 12/25(주일) 3부 예배 시

문의 : 이창수 안수집사(010.5472.7059)

2. 제3회 함글함글 신춘문에 공고

공모부문 : 시(3편), 수필(2편), 간증(2편)

접수방법 : 이메일(pclhamletter@naver.com)접수

(메일 제목 : '함글함글 신춘문에 응모작품' 기입)

접수 마감 : 12/15(목) 24:00까지

※ 게시판 포스터 참고

3. 2022 성탄절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2022 따뜻한 희망상자 /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후원품 접수장소 : 1층 로비

기간 : 12월 11일, 18일(주일) 2주간

* 우리 교회는 2년전부터 성탄절 헌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유정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 바랍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